

할아버지는 뒤돌아보는 손자에게 손을 흔들었다

수리아의 검-Ⅱ
고지연 불교 판타지 소설

이야기의 시작 - 운명과 예언 (9)

“그럼 저희 갔다 올게요.”
난다가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응, 우리 갔다 올게……요.”
무니 역시 식탁 의자에서 일어났다. 난다네 엄마는 무니가 놓고 간 빈 컵을 치우며 나가는 아이들의 뒤통수를 향해 말했다.
“그래, 조심해서 잘 다녀오렴. 아! 그리고 이상한 거 또 뜯어먹어서 동네 사람들 고생시키지 말고!”
“네, 알았어요.”
아이들의 대답 소리가 문 너머로 사라지며 문이 닫혔다. 그리고 부엌 쪽에선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마구간으로 향하는 길, 무니는 난다가 뒤로 맨 가방을 툭툭 건드리며 물었다.
“여기 뭐 들었어? 솔직하게 말해 봐”
“왜, 뭐 들었을까봐? 아까 다 이야기했잖아.”
“뭘, 진짜야? 웬 목도리? 정말 밤에 산이 추울까봐 들고 간다는 거야?”
난다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느 새 두 사람은 마구간에 도착했다. 유리 영감은 칸타카를 손질하는 중이었다. 난다가 깜짝 놀라며 물었다.
“어? 칸타카는 언제 데리고 오셨어요?”
“막 무니네 집에서 데리고 왔다. 아, 그리고 무니야, 너희 엄마가 빠뜨렸더니서 이걸 주더구나. 생일 선물이라고 말야.”
유리 영감은 무니의 손에 뿔가를 쥐어 주었다. 껍데기는 쫄의 목걸이었다. 무니는 그걸 손에 들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무니의 그런 모습에 유리 영감이 난다에게 넌지시 눈짓을 보냈다. 그제야 난다는 ‘아!’ 며 무니가 들고 있는 목걸이를 얼른 걸여주었다.
“잘 어울리는구나.”
유리 영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러자 무니도 환하게 따라 웃으며 목걸이를 내려다봤다. 엄마에게 생일 선물을 받더니, 상상도 못했다.
“그런데 칸타카는 왜? 저희 돌마를 데리고 가는 거 아니었어?”
난다가 물었다.
“생각해보니 오늘은 칸타카를 데리고 가는 게 좋을 거 같아서 말야. 너희들 돌마와 칸타카가 어떤 말인지 아니?”
“물라요. 이야기해주시는 걸요.”
“아주 오래 전에, 여기에 사람들이 막 모여살기 시작했을 무렵에 말야. 그때 이 마을에 아시타라는 예언자 리시가 타고 온 말이지. 그는 이걸 암리타의 말이라고도 했다고 하는구나.”
“암리타의 말?”
무니가 되물었다.
“그래, 암리타의 말. 아무튼, 난다야, 일러준 건 모두 잘 챙겼는지? 내가 적어준 약초들은 모두 누프르



삽화 · 김홍인

산에 있는 것들이니, 하나도 빼놓지 말고 찾아와야 한다. 이게 네 마지막 약초화 숙제니까. 신나지? 그리고 무니는 잠깐 이거 들고 있거라.”
유리영감은 무니에게 조그만 가방을 하나 건네주고는 칸타카의 등에 짐 바구니를 달기 시작했다. 난다가 그 가방을 훑기 쳐다봤다.
“이것도 혹시 무니 선물이에요?”
“하하, 그래, 선물이다! 거기 가서 괜히 이상한 거 먹지 말고, 목마르면 그 가방 안에 든 거 마시도록 하려무나. 할아버지가 만든 특제차니까 말야.”
무니는 가방의 무게를 가늠해보더니 말했다.
“좀 무거운데?”
“난다에게 미처 챙겨주지 못한 책도 몇 권 더 넣어서 그렇단다.”
“할아버지, 책을 또 넣으셨어요? 무슨 약초 몇 뿌리 캐는데, 책이 수십 권이예요!”
“과장도 정도껏 해라. 유녀야! 막상 산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모르는 게 있으면 책 찾아봐.”
“아, 그만 툭툭대고 그만 가자.”
무니가 잔뜩 불을 부풀린 난다에게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무니는 목걸이 때문에 기분이 좋았다.
“그래, 일단 짐들을 모두 다오. 칸타카한테 실어 주마.”
바구니를 다 난 유리 영감이 말했다. 출발할 준비

가 끝난 셈이었다.
“어쩐지 되게 멀리 가는 거 같다. 그렇지?”
마구간을 나서던 무니가 지나가는 것처럼 하는 말에, 난다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얼른 할아버지의 얼굴을 쳐다봤다. 그는 어느 때와 같은 표정으로 칸타카의 엉덩이를 두드려주고 있었다.
“누프르산이면 멀지, 뭐.”
난다는 그런 할아버지의 얼굴을 확인한 후, 애써 자신의 불안한 느낌을 털어내 버리려는 듯 말했다.
“얼른 출발하도록 하려무나.”
유리 영감이 말했다.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인 무니는 앞서 걸어가기 시작했다. 난다 역시 그 뒤를 따르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모습이였다.
“해 지기 전에는 돌아 오거라.”
할아버지는 자꾸만 뒤돌아보는 손자에게 평소와 같이 손을 흔들며 보였다. 난다 역시 손짓으로 그려줬다는 대답을 대신했다. 그렇게 두 소년은 누프르산으로 향했다.
한편 목걸이를 건넨 후, 유리 영감을 배웅하고 들어온 마야는 또 다시 심한 두통에 시달렸다. 머리가 깨질 것만 같았다. 그녀는 급하게 유리 영감이 썼던 약을 찾아 물과 함께 삼켰다. 하지만 약효가 금방 퍼지지 않는 것인지, 두통은 더욱 더 심해졌다. 비명이 저

절로 흘러나왔다. 또 다시 온갖 영상들이 눈앞에 번쩍 번쩍하며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증상 때문에 구역질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마야는 결국 쓰러졌다고 말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녀가 정신을 차렸을 때, 눈앞에 있는 사람은 혼장이였다. 그는 초조한 표정으로 마야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무거운 몸을 겨우 일으켰다. 그리고 무슨 일로 왔냐는 시선을 혼장에게 보냈다.
“무니 좀 만나러 왔는데, 쓰러져 있기에. 아니, 엄마가 이 지경인데 아들이런 녀석이 어딜 돌아다니는 거야, 도대체! 어디 말리라고 간 게요?”
마야는 고개를 끄덕였다. 혼장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멀리?”
마야는 다시 끄덕였다.
“혹시 그거 유리 영감이 보낸 거 아니냐?”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의 마야가 또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 그랬어.”
혼장은 이미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지도 않았다. 혼자 초조하게 머리를 굴리며 뿔가를 떠올리려 하고 있었다.
“그럼, 몸 좀 더 잘해요!”
혼장이 벌떡 일어나더니 마야에게 말했다. 그리

고 급하게 집을 나서 어딘가로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길가에 말려놓은 낱알들이 밟히는 줄도 몰랐다. 하늘은 며칠 전 유리 영감네 오두막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점차 보라색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몇몇 집의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유리 영감은 오두막 앞에 서서 마을의 풍경을 고요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들이 아직 안 돌아오는 걸 보면 그가 준 음료를 마셨다고 볼 수 있었다. 그가 제대로 수레바퀴를 해석한 것이라면 오늘이 그 날이리라. 그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그 정도였다. 물론 어쩌면 잠에서 깬 아이들이 돌아와 약초를 꺼내놓는 모습을 보게 될 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는 눈을 천천히 감았다. 자신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없었다. 머느리에게는 아이들이 무니네 집에 들릴 것이라 말해주었고, 마야에게는 아이들이 자신의 집에 들릴 것이라고 해주었다. 그러나 걱정을 끼칠 일은 없었다. 막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윽고 다시 천천히 눈을 뜬 그는 머느리가 준비해놓은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오두막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잠시 후, 유리 영감이 완전히 사라질지 숨어서 기다리고 있던 누군가가 오두막으로 침입했다. 혼장이었다. 안은 상당히 어두웠다. 창문까지 작아서 달빛도 충분히 들어오지 못했다. 혼장은 책상 위에 있는 조그만 등을 켜 주위를 비추보았다. 십여 년 전과 비교해 변한 건 거의 없는 거 같았다. 그는 그때 자신이 예언서를 발견했던 사람을 열었다. 영감이 나가길 기다리는 동안 그는 그날의 기억을 되짚으며 책의 위치를 떠올리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서랍에는 아무 것도 들어있지 않았다. 정말 아무 것도 이상하다는 느낌이 든 그는 다른 서랍도 모조리 열어봤지만 마찬가지였다. “그럼, 그건 어디 있지?” 망연자실해 혼장말을 하던 혼장은 책상을 뒤지기 시작했다. 분명 며칠 전 유리 영감이 뿔가를 보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던. ‘그게 뿔지 볼 수만 있다면!’ 마음이 급해졌다. 그는 책상 안의 책들을 마구 집어내 바닥에 던지기 시작했다. 분명 여기 어딘가에 그 물건이 있을 것이다. 그는 예언서에서 봤던 ‘불완전한 탄생은 불완전한 소멸을 가져온다.’ 라는 문장을 떠올렸다. 그 문장은 ‘불완전한 소멸은 불완전한 탄생을 가져온다.’ 라는 문장과 대우를 이루고 있었다. 예언서에서는 분명 그 불완전한 탄생을 이룬 지 십 년이 되는 날 불완전한 소멸이 시작된다고 적혀있었다. 그날이 오늘이란 말인가. 혼장은 털썩 주저앉았다. 순간 그가 책상에서 꺼낸 마지막 책이 잠시 바닥에 세워놓은 등불 위로 탁하고 떨어졌다. 그러자 건조하고 오래된 책들이 순식간에 불이 붙었다. 찰나 간의 일이었다. 정말 거짓말처럼, 어쩌면 기다렸다는 듯 불길이 퍼지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불이아!’라고 외친 사람은 난다의 아빠였다. 그러나 뒷산 오두막에서 내려온 불은 난다네 집을 시작으로 길가에서 말리고 있던 낱알을 따라 온 마을로 번지기 시작했다. 굴뚝에서 평화롭게 피어오르던 연기는 더 큰 연기에 버려졌처럼, 마을은 활활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35 좋은인연 사찰대출안내

31년의 역사와 자산700억원을 자랑하는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에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불교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 1억원 대출시 월이자가 6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 2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3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4 단체명의사찰과 증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35 친절상담

상무 이강욱 ☎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본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급)안내

- 위 치 : 경북 포항시 (서포항 IC 10거리)
- 사찰 전시관 (2층 240평) 대웅전, 용왕, 산신, 지장전, 대웅공양실, 판매장 총 2500평
- 일반 재가 불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음
- 특 징 : 눈물 흘리시는 약사여래불, 국내최대 관음목불 (약 250년), 50여점의 크리스탈 개금불 외 희귀불상 전시 (목불 위주 전시) 일사관 외벽 만다라전시, 월간 약 10여개 이상 천도제.
- 전시관은 크리스탈 전시회 종료로 약 10년간 걸쳐 조성한 주지스님 개금불로서 절대 모방이 불가능하며 참배하시는 분께서는 황홀함에 빠져드는 진귀한 작품.
- 민간방송에서 17회 방영된바 있음.
- 임야 10,500평은 대형저수지로서 2011년 2차선 공사 완공되면 어떠한 명목으로 허가 가능함.
- 임야 제외 34억, 사찰만 할 경우 32억
- 상기 면적중 성취관 (240평)의 불상 및 전시관에 조성자금 소요 자금만 받고 있음. (기타 일체 무료)
- 인터넷 상에서 포항 성취관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연락처 : 010-4504-0174

대덕스님께서 운영하시면 널리 알려진 곳이기 때문에 대성공을 확신합니다.

KBS 과학카페 박연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어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가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임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실법
똥똥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축적되어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www.chorokwon.com 박연숙 원장

청정 청풍골 참다슬기 농축액

“간”이 피로 하십니까?

예로부터 맑은 물에서 자란 참다슬기는 그 효능이 토종 울담에 비길 만하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동강청정원에서는 강원도 동강과 남한강 상류 지역에서만 채취한 구슬알 다슬기와 참 다슬기만으로 다슬기 기름과 다슬기 농축액을 제조·판매하고 있습니다.

참 다슬기 농축액

▶다슬기 농축액 : 다슬기 10kg을 껍질까지 분쇄하여 마늘과 생강만을 넣고 가마솥에서 3일간 달여 10ml 60봉지로 포장하여 판매합니다.
▶다슬기 기름 : 다슬기만 15kg을 항아리에 넣고 불기마속에 5일간 걸쭉까지 녹여 내린 것으로 900ml병에 담아 판매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품은 냉장상태로 포장하여 택배 배송하고 있으며 후불제로 판매합니다.

문의 : 043)652-2121 동강청정원